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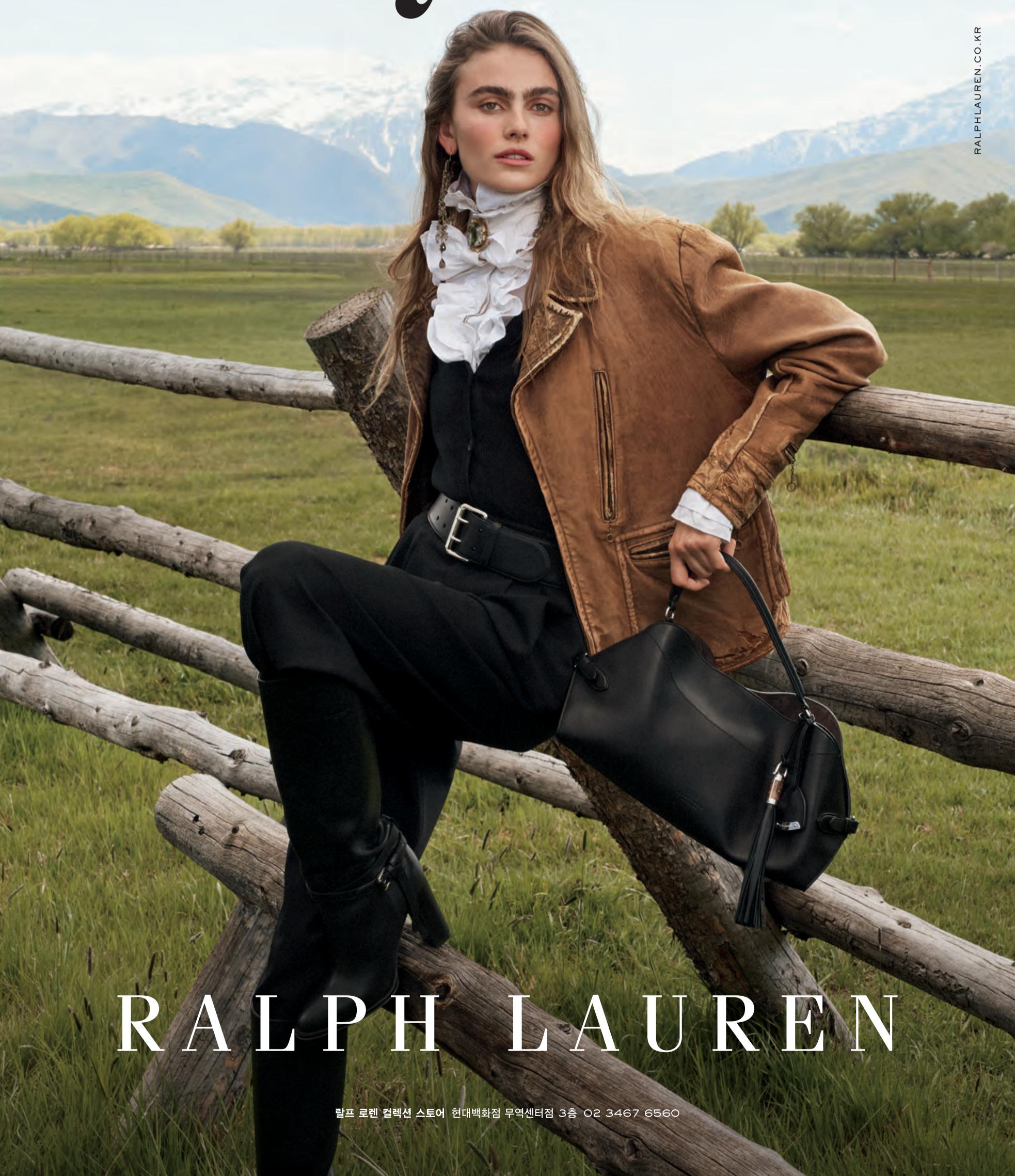
October 2025
vol. 293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Into Class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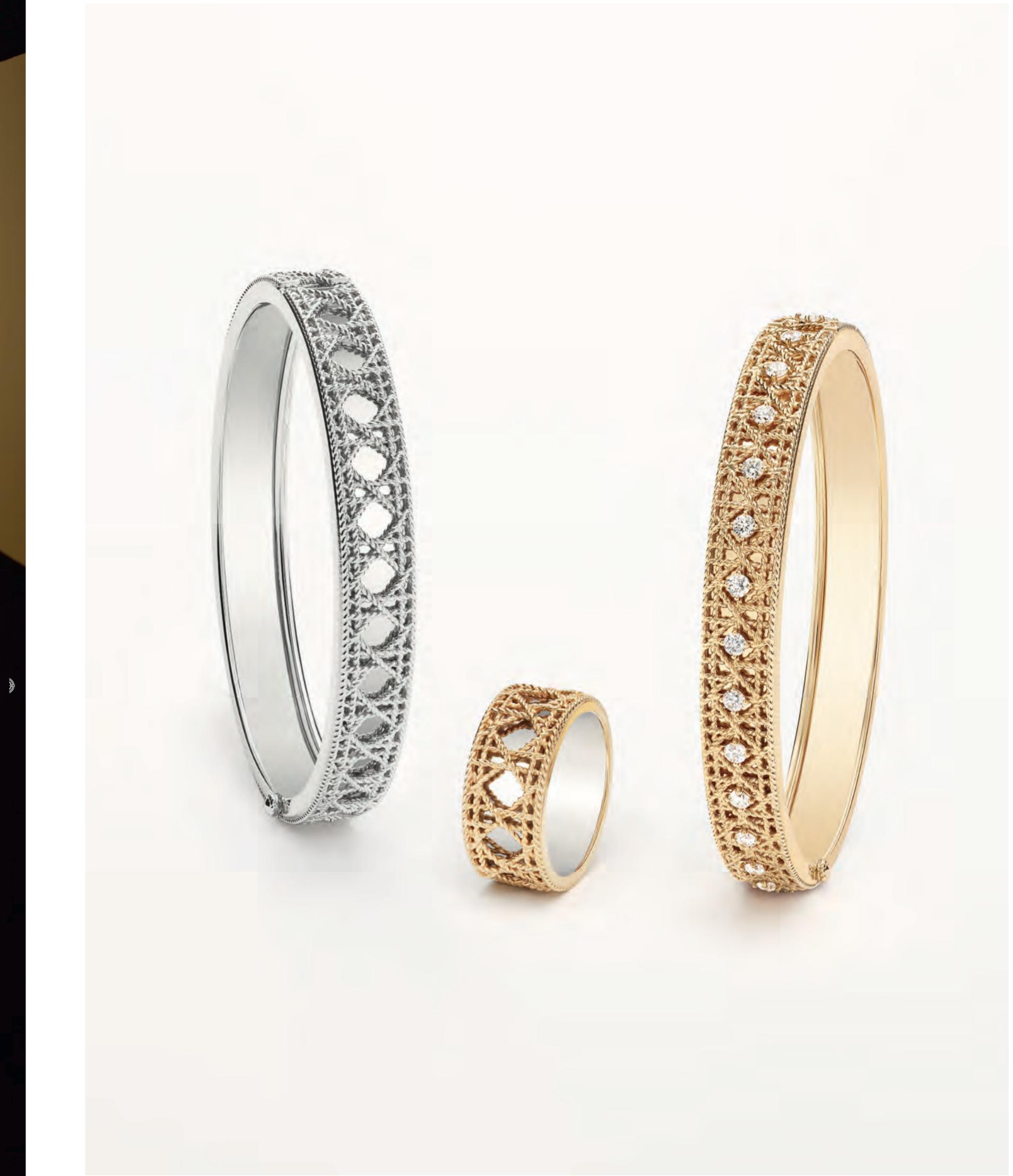
RALPHLAUREN.CO.KR



RALPH LAUREN

랄프 로렌 컬렉션 스토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3층 02 3467 6560





DIOR

MY DIOR COLLECTION

온라인 부띠끄. Dior.com



omegawatches.com



AQUA TERRA IN TURQUOISE

선명한 터콰이즈 컬러와 클래식한 오메가 스타일이 결합한 새로운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를 만나 보세요. 레거 디아일은 미묘한 블랙 그라데이션으로 더욱 매력적이며, 그레이 핸즈와 인덱스와 뚜렷한 대비를 연출합니다. 새로운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41mm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타임피스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Ω
OMEGA

갤러리아 명품관 EAST 광교점 롯데 본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인천터미널점 현대 목동점
무역센터점 더현대서울점 신세계 본점 더 리저브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대전 아트엔사이언스점 대구점

Contents

OCTOBER 2025 / ISSUE.293

10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12_SELECTION 경쾌한 색감과 유쾌한 디테일, 보온성을 더한 따뜻한 소재로 완성한 이번 시즌 아이템.

13_GOLDEN HOUR 눈이 시리도록 호화롭다.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시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금빛으로 물들일 때.

14_문화 예술 플랫폼으로 살아가는 창조적 부 (富)를 말하다 역동적인 매력을 품은 방콕에 눈여겨볼 만한 변화를 자아내는 참신한 공간들이 들어서고 있다. 특히 오는 연말께면 '방콕 최초의 글로벌 현대미술관'을 표방하는 딥 방콕(Dip Bangkok)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인데, 이 신선한 흐름을 이끌고 있는 인물을 지난 9월 초 '카이프x프리즈(KdxFrieze)' 서을 기간에 만나봤다.

16_바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다대포 예술 여행 2025바다미술제는 부산의 남서쪽 끝에 위치한 다대포해수욕장을 무대로 '물 위를 걷는 물결들(Undercurrents)'이라는 주제의 바다 여행을 제안한다.

17_도심 속 럭셔리 웨니스의 흐뭇한 예 반세기 만에 다시 열린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를 계기로 새 얼굴들이 등장하면서 도시의 호텔 풍경을 제법 흥미롭게 바꿔놓았다. 지난 5월 모습을 드러낸 이래 차근차근 존재감을 쌓아가고 있는 파티나 오사카(Palma Osaka)는 특히 유심히 봐둘 만한 참신한 럭셔리 호텔이다.



22



14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티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티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티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랄프 로렌의 2025 봄 풀리데이 시즌 캠페인은 '마운틴 리빙(Mountain Living)'의 배경인 서부의 산맥에서 촬영되었다. 오래된 붉은 트리의 달리고, 꼽없이 이어진 나무 울타리가 수평선을 기준지로는 등이 장면은 랄프 로렌의 이상향인 길을 개척하는 용기와 삶을 주도하는 희망, 꿈을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한신을 상징한다. 문의 02-3467-6560



12



24

Style 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김하연 stylechosun.khy@gmail.com, 윤자경 yjk@chosun.com 디자털 에디터 신정임 sjj@chosun.com 인턴 에디터 김보민 bomingg0129@gmail.com 디자인 나는컴퍼니 교열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ngs@chosun.com 이정희 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 제판 덕일 인쇄 타라티피에스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페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LOEWE



Puzzle bag
Fall Winter 2025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Eternal Camélia

사설의 상징적 모티브인 깨멜리아는 단순한 꽃을 넘어 여성의 자유와 우아함을 상징해왔다. 이번 시즌, 하우스는 쿠퍼트 정신을 담아 이를 새롭게 해석한다. 꽃잎의 곡선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깨멜리아 블룸(CAMÉLIA BLOOM) 커프와 린, 레이스와 리본을 연상시키는 엑스트레 드 깨멜리아(EXTRAIT DE CAMÉLIA) 초커, 엘로 골드와 다이아몬드가 어우러진 부통 드 깨멜리아(BOUTON DE CAMÉLIA) 라인과 엑스트레 드 깨멜리아(EXTRAIT DE CAMÉLIA) 브레이슬릿은 모두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전한다. 깨멜리아 컬렉션은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으로 사설의 쿠퍼트 정신을 오늘로 이어가는 아이콘으로 자리한다. 문의 080-805-9628

NEW HATS

Beyond Elegance

사설 위치의 시초이자
아이코닉함으로 자리 잡은
프리미에르, N°5 향수
보틀 스토파에서 영감을
얻은 팔각형 케이스와
사설의 상징인 캠팅 베의
레더 체인을 차용한
브레이슬릿까지, 남성적인
코드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사랑받아왔다.
올해 사설은 프리미에르
컬렉션을 또 한번 새롭게
선보인다. '프리미에르
길통(Première Galon)'
이라 명명한 이 워치는
기존 브레이슬릿 대신
트위스트 브레이드로 만든
뱅글을 매치해 새로운
착용법을 제시한다.
18K 엘로 골드 소재의
브레이슬릿에 인디케이터
없는 깔끔한 블랙 레어
다이얼을 올려 팔각형
케이스는 한층 더 돋보이게
한다. 다이아몬드가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두
가지 타입으로 제공된다.
문의 080-805-9628



For My Lady

패션의 완성, 로맨틱 헤드 가이어. (위부터 차례로) 실크 크레이프 소재에 아이코닉한 로고 장식을 더한 베로모
가격 미정 사설. 문의 080-805-9628. 아이보리 컬러에 대비되는 블랙 컬러의 세단 리본 장식이 포인트인
V 로고 시그너처 베로모 1백7만원대 밤팔티노 가라비나. 문의 02-2015-4655. 브라운 컬러의 메시 니트
조직에 스트레이트 에지 디테일이 특징인 클래식 비니 8만2천원대 아티슈. 문의 1644-4780. 핑크 올과
캐시미어 소재로 텐업 밀단의 오버사이즈로 제작했으며, 블랙 컬러 플림메티스 퀼 배일과 맥시 세이프티 핀
디테일은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으로 사설의 쿠퍼트 정신을 오늘로 이어가는 아이콘으로 자리한다. 문의 080-805-9628



The Next Iconic

溽프 로렌 컬렉션의 RL 888은 브랜드의 역사가
서린 뉴욕 매디슨 애비뉴 888번지에 위치한 여성
플래그십 스토어를 기념하기 위해 명명되었다.
제품명에서 느낄 수 있듯 남다른 의미를 지닌 RL 888
컬렉션에 새로운 백이 추가됐는데, 바로 'RL 888
미니 토트백'. 이탈리아에서 수작업으로 정교하게
제작한 백으로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감촉을 위해
특별히 선별한 카프 스킨 소재를 활용했다. 미니
사이즈지만 넉넉한 내부 공간을 자랑하며, 길이 조절이
가능한 스트랩, RL 모노그램 참을 더해 섬세하게
마무리했다. 2백70만원대. 문의 02-3467-6560



My Precious

디올 파인주얼리의 아티스틱 디레리, 빅투어르 드
카스텔란의 손에서 탄생한 마이 디올(My Dior)
컬렉션은 허우스의 상징인 까나주 패턴을 모티브로
완성했다. 장인의 탁월한 기술력과 그녀의 창의적
디자인을 더해 완성된 섬세한 골드 브레이드 디테일이
특징이다. 이번 컬렉션은 다이아몬드를 피부 세팅한
초커, 두 손가락을 감싸는 더블 린, 엘로 골드 및
화이트 골드 소재의 싱글 이어링 등 다채로우며,
그중에서도 구조적 세이프의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은
우아한 분위기를 뿐만 아니라.



Futuristic Notebook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몽블랑이 '몽블랑 디지털 페이퍼'를 선보인다. 전통적인 손 글씨가 지난 감각적
경험을 디지털 세계로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다.
함부르크 본사의 속련된 장인들이 개발하고 테스트
과정에 참여해 메종 고유의 필기 경험을 디지털
환경에서도 완벽히 재현되도록 고안했다. 이 디지털
수첩으로 중요한 메모, 프레젠테이션, 전자책, 문서에 쉽게
글을 쓰고 주석을 달 수 있으며, 손으로 쓴 메모와 표시를
남긴 페이지 또는 문서 모드 검색 가능하다. 또 직관적
검색 기능으로 자료를 빠르게 서치할 수 있고 달력,
플래너, 저널 템플릿 등의 기능도 갖췄다. 이 모든 문서는
이메일, USB-C, 몽블랑 클라우드에 연결된 동반 앱을
통해 자유롭게 공유하고 수신할 수 있다. 몽블랑 특유의
필기 경험을 실제처럼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펜에 장착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세 가지 교체식 펜 팀을 제공하며,
각 팀이 다른 종류의 종이 질감을 전달해 자신이 쓰는
필기 스타일에 맞춰 조정 가능하다. 이 놀라운 기술은
담은 몽블랑 디지털 페이퍼는 몽블랑 브티크와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877-5408



Behind the Lights

디올 백스테이지 컬렉션이 새로운 글로우 루즈를 선보인다.
NEW 디올 백스테이지 글로우 맥시마이저 팔레트는 네
가지 파이프로 입체적인 광채를 더하며, 한정 세이드를
추가해 컬러 라인업을 확장했다. 여기에 체리 오일과
하일루론산을 담아 촉촉함을 선사하는 디올 어딕트 립
맥시마이저를 같은 컬러 코드의 세 가지 한정판으로
출시해 디올 레이비니 글로우 루즈를 완성했다. 디올 어딕트
립 맥시마이저 #111 페리 피치 6ml 5만1천원대, 디올
백스테이지 글로우 맥시마이저 팔레트 #003 페리 피치
글로우 10g 7만7천원대. 문의 080-342-9500

Haute Beauty

쿠퍼트 브랜드들의 뷰티 도전기. 감성은 물론 제품력까지 겸비한 코스메틱을 만나볼 시간.



FESTIVAL

DANCE REFLECTIONS BY **반클리프 아펠**

무용 예술 펜션이면 손꼽아 기다렸을 가을 축제의 막이 열린다. 오는 10월 16일
안무가 태오 예가 이끄는 타오 댄스 시티의 개막작 '16&17'을 시작으로 론,
(리)오크드, 마르세유 국립 발레단이 함께하는 룸 워드 어 뷔(Room with a View),
안 마르센스의 '도그 데이즈 오버 2.0', 허 프로젝트의 '도씨', 마르코 다 살바
페레이라의 '카르카사', 네모 플루레의 '900' 멀티, 20세기의 기억 등으로 이어지는 '댄스
리플렉션 by 반클리프 아펠(Dance Reflections by Van Cleef & Arpels)' 페스티벌이
3주간에 걸쳐 서울 일대에서 펼쳐진다(11월 8일까지). 프랑스 명품 브랜드 반클리프
아펠이 주도하는 문화 예술 이니셔티브인 이 페스티벌은 2022년 3월 런던을 첫
개최지로 삼은 뒤 홍콩, 뉴욕, 교토 등 주요 도시에서 매년 두 차례씩 진행되어왔다.
세계적인 안무가와 무용수들이 9개 작품을 소화하는 이번 서울 행사는 전 세계 여섯
번째이자 한국 최초로 진행되며, 이는 이미 수년 동안 국내 최대 공연예술 페스티벌인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와 쌓아온 협업의 인연을 바탕으로 한 결실이다. 작년에는
SPAFL 페스티벌로 댄스 리플렉션이 후원해온 프랑스계 오스트리아 안무가이자 예술가
지젤 비엔(Gisèle Vienne) 김숙의 사람들(Crowd)이 공연되어 큰 호평을 얻기도 했다.
발레 같은 무용 예술과 남다른 접점을 자닌 반클리프 아펠은 브랜드 차원에서 추구하는
창조, 전승, 교육이라는 가치에 역점이 두고, 전 세계 수많은 무용 단체의 창작을
독려하고 그들이 아름답게 비상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돋고 있다. 이번에도 공연 외에
워크숍, 아티스트 토크 등의 프로그램을 꾸린다. 티켓 예매는 아르코 대학로예술극장,
세종문화회관 등 각 공연장 홈페이지와 NOL 인터파크 티켓을 통하여 된다. 글 고성연

D DANCE REFLECTIONS
BY VAN CLEEF & ARPELS
댄스 리플렉션 BY 반클리프 아펠
AND spaF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PRESENT A DANCE FESTIVAL
R

Seoul
Oct. 16
— Nov. 8
2025



Selection

경쾌한 색감과 유쾌한 디테일, 보온성을 더한 따뜻한 소재로 완성한 이번 시즌 아이템. 가장 빛나는 계절을 더욱 활기차게 채워줄 가을 위시 리스트.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YOON JI YOUNG



경쾌한 퍼를 사랑하는 이어리
느낌을 사로잡는 브랜드
4천5백만원대 오메가

오메가 02-6905-3301 몽클레어 컬렉션 0030-8321-0794 카린 02-6905-3453
프라다 02-3442-1831 알프 로렌 퍼플 라벨 02-3486-6235 스와로브스키 02-1522-9065
사파리 080-805-9628 펜디 02-544-1925 IWC 1877-4315 브레이 02-6905-3571
에트로 02-3446-1321 그라프 02-2256-6810 로에베 02-3479-1785 에코 1833-2611



Golden Hour

눈이 시리도록 화려하다.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시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금빛으로 물들일 때.

PHOTOGRAPHED BY PARK JAE YOUNG

(왼쪽부터 차례대로) 파네라이 PAM01182 브랜드가 개발한 골드테크(Goldtech™) 소재로 완성했다. 38mm 쿠션형 케이스에 선브러시드 블루 다이얼로 명확한 대비를 이루며 투명 케이스 백을 통해 약 3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P900 무브먼트를 강조할 수 있다. 5천5백900만원, 문의 1670-1936 브레이슬릿 5527 로마수자 인덱스, 3시 방향의 미닛 카운터, 9시 방향의 스물 세컨즈 등으로 구성했다. 4시와 5시 사이에 자리한 캘린더 인디케이터로 실용성을 더했으며, 아광 처리한 핸즈와 인덱스로 시인성을 높였다. 9천9백만원대, 문의 02-6905-3571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세프위팅 크로노그래프 41mm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모두 18K 엘로 골드로 제작했으며, 그레이스리 패턴 다이얼을 추가했다. 절묘 아워 기능을 갖춘 칼리버 4401로 구동한다. 1억2천6백14만원, 문의 02-543-2999 블랑팡 피프티 패밀즈 베리스포 캘린더 문페이즈 전문 다이얼을 위해 고안한 시계로 레드 골드 소재의 청량함이 감도는 선버스트 블루 다이얼이 특징이다. 지름 43.6mm 케이스 위로 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문페이즈 디스플레이와 날짜를 표시하는 캘린더 기능을 적용했다. 8천3백34만원, 문의 02-3479-1833 IWC 인제니어 오토매틱 지름 35.1mm 레드 골드 케이스에 골드 다이얼, 골드 아플리케 인덱스와 핸즈, 일체형 골드 브레이슬릿을 장착했다. 작은 선과 사각형으로 구성한 그레이스리 패턴 다이얼이 특징. 오픈 케이스 백을 통해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47110 칼리버를 확인해볼 것. 5천7백30만원, 문의 1877-4315 불가리 옥토 피니시모 오토매틱 샌드블라스트 마감의 18K 엘로 골드 케이스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팔각형으로 디자인했으며, 그 위에 바 인텍스와 아리아나수자 인덱스, 7시 방향의 스물 세컨즈 등을 추가했다. 최대 100m 방수 기능과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6천7백만원, 문의 02-2056-0170 에디터 김하얀

에디터 김하얀 스타일리스트 임희정



방콕의 새 랜드마크 딥 방콕의 등장을 앞두고

문화 예술 플랫폼으로 쌓아가는 창조적 부(富)를 말하다

어느 메트로폴리스든 하나의 색으로 밀하기 힘들지만, 태국의 심장인 수도 방콕은 '무지개빛'이라는 표현이 절로 나오는 도시다. 휘황찬란한 불교 사원들의 자태와 더불어 곳곳에서 사람 냄새' 나는 복작복작한 거리 풍경, 그리고 빠죽빠죽 치솟은 고층 건물들이 그려는 대조미가 묘한 앙상블을 이뤄내고, 자동차 행렬 속에 바이크가 무법자처럼 지배하는 러시아워에 걸리면 눈을 질끈 감아야 할 정도로 혼란스럽지만 '툭툭'으로 불리는 삼륜차의 형형색색 대열이 눈에 띠는 야경을 접하면 흥이 절로 돋고, 환상적인 미식으로 오감을 달래면 이내 모든 게 용서되어버린단까. 이렇듯 몹시도 역동적인 매력을 품고 있지만 동시대의 문화 예술을 담는 그릇인 '플랫폼'을 생각하면 아쉬운 감이 들었던 방콕에 눈여겨볼 만한 변화를 자아내는 참신한 공간들이 들어서고 있다. 특히 오는 연말까지만 '방콕 최초의 글로벌 현대미술관'을 표방하는 딥 방콕(Dib Bangkok)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인데, 이 신선한 흐름을 이끌고 있는 인물은 지난 9월 초 '키아프×프리즈(Kiaf×Frieze)' 서울 기간에 만나봤다. 예술경영지원센터(KAMS)가 키아프, 프리즈와 함께 기획한 토크 프로그램에 키아프 초청으로 참여한 딥 방콕 설립자 푸랏(장) 오사타누그라(Purat (Chang) Osathanugrah, b.1993)가 그 주인공이다.

바젤(ABB) 등 다시금 맞이한 축제의 뜰뿐 분위기가 여실히 묻어난 현장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2022년은 플랫폼의 확장과 등장이 두드러진 해이기도 하다.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3대 아트 페어로 꼽혔던 피아(FIAF)을 대체한 아트 바젤 파리(APB)가 가을에 선보였다. 팬데믹 기간에는 아시아에서도 활기찬 변화의 기운이 꿈틀거렸다. 서울에는 키아프와 프리즈가 손을 잡고 9월 초 많은 이들을 들뜨게 하는 강력한 아트 페어 주간이 생겼고, 가을이 조금 익어갈 무렵이면 도쿄와 교토에서도 각각 아트 위크 도쿄(AWT), 아트 컬래버레이션 교토(ACK) 같은 행사가 열린다.

변화의 기운이 짹트는 방콕의 아트 신

그렇다면 활발한 행보가 돋보이는 다음 주는 어디일까? 올 들어 아시아의 문화 예술 생태계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도시를 하나 꼽는다면 단연 방콕이 아닐까 싶다. 특히 공공의 영역보다는 민간 주도의 흥미로운 아트 프로젝트가 활발히 꾸려지고 있어 더 눈길을 끈다. 먼저, 지난해 문을 연 방콕 콘스트할레(Bangkok Kunsthalle)가 있다. 방콕 도심의 차이나타운에 행사는 도쿄멘타를 비롯해 베尼斯 비엔날레(아트), '원조 도시'인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아트

1, 2 딥 방콕(Dib Bangkok) 외관(렌더링). 이미지 제공, 딥 방콕 3 지난 9월 초 열린 프리즈 서울 2025에 참여했던 태국 SAC 갤러리 부스. 4 프리즈 서울 2025의 글래스톤 부스에서 전시되었던 태국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리크릿 티라반니(Rekrit Tiravanija)의 작품 'untitled'(2025). 1970년대 신문지(뉴욕타임스) 위에 게다가 출신의 거장 필립 거스틴의 회화를 레퍼런스로 삼은 작업 5 올해 프리즈 서울 부스에서 SAC 갤러리가 선보인 푸랏 지와랑산(Prapart Jiwarangsar)의 작업 '기생 가족 no.3(Parasite Family no.3)(2024). 이미지 제공_프리즈 서울

위기의 '아트 스페이스'로 털바꿈시킨 사례인데, 한눈에 봐도 화마에 휩싸인 흔적이 역력해 누가 봐도 '탈(脫)화이트 큐브'적이라는 데 수긍할 만한 이 커다란 브루탈리즘 건축물은 다양한 국적의 아티스트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면서 전시와 공연을 꾸리고 대담회를 여는 전천후 현대미술 공간으로 거듭났다. '과정=치유'가 되는 이 재생 프로젝트를 발동시킨 기관인 카오 애트(Khao Yai Art)의 수장은 한국계 태국인 자선사업가이자 문화 예술 후원자인 마리사 찌아라와논(Marisa Clearavanont)이다. 그녀는 지난 2월 초 태국 동북부의 국립공원 인근에 오랫동안 방치된 땅을 사들여 '카오 애트 포레스트'라는 방대한 '예술의 숲' 조성 프로젝트를 역시 '치유' 개념을 바탕으로 선보여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얼마 전 서울에서 마주친 그녀는 "우리의 행보를 글로벌 신에서 참신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운 좋게 방콕과 카오 애트를 방문해 현장을 생생하게 접한 필자는 "이건 시작"이라면서 앞으로 태국의 문화 예술 후원자들이 전개하는 프로젝트가 줄지어 나올 예정이라는 귀띔을 현지 관계자로부터 들었다. 무엇보다 오는 12월 중순에 방콕 도심에 선보일 현대 미술관 딥 방콕(Dib Bangkok)이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일단 건축과 컬렉션이 있다. 1980년대에 지은 강철 창고를 태국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쿠랄파트 앤트라사스트(Kulapat Yantrasast)가 이끄는 WHY 아키텍처가 미니멀하면서도 인상적인 파사드가 특징인 3층짜리 미술관(약 7,600m² 규모)으로 거듭나도록 재설계했다. 소장품은 전 세계 2백 명 이상의 작가를 아우르는 1천여 점에 이르는데, 그 중에는 우리나라 대표 작가 이불을 비롯해 안젤름 키페(Anselm Kiefer), 알리자 크바데(Alicia Kwade) 등 쟁쟁한 이름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어찌면 더 강력한 요인은 '오사타누그라라는 '집안' 배경 덕분일지도 모르겠다. 태국 현지에서 '레드불'보다 인기 있는 에너지 드링크 'M-150'을 생산하는 기업 오솟스파(Osotspa)를 소유하고 있는 테다 사립대인 방콕대학교(Bangkok University)를 운영하고 있기도 한 오사타누그라 가문에서 추진해온 프로젝트인 만큼 관심도가 남다르다. 단지 세계의 유명한 집안이어서만은 아니다. 2년 전 앙타깝게도 고인이 되었지만 이 집안의 후계자 페트 오사타누그라(1954~2023)는 단순한 기업가로서만 활약했던 게 아니라 아니라 전설적인 히트송까지 낸 뮤지션이자 예술을 사랑하는 아티스트였다. 오랫동안 미술품을 수집하면서 세상에 선사할 예술 공간을 공들여 준비해오던 그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이제 아들인 푸랏(장) 오사타누그라(Purat (Chang) Osathanugrah)가 바통을 이어받아 부친의 열망 어린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있다. 마침 그가 지난 9월 초 '키아프리즈' 주간에 코엑스에서 열린 '특별전 연계 토크: 진열된 마음' 세션에 패널로 참여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다. 태국에서 이름 앞에 붙는 존칭을 겸들여 '쿤(Khun) 창'으로 통하는 그와 글로벌 문화 예술 도시로서의 의미 있는 도약을 꿈꾸는 딥 방콕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다.

글 고성연

6 딥 방콕 설립자로 태국의 문화 예술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푸랏(장) 오사타누그라(Purat (Chang) Osathanugrah). 이미지 제공_딥 방콕

7 예술경영지원센터(예경)는 9월 4~6일 코엑스의 스튜디오 159에서 키아프-프리즈 서울과 공동 기획한 '2025 Kiaf SEOUL KAMS x Frieze Seoul'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마지막 날인 9월 6일 진행된 특별전 연계 토크: '진열된 마음' 세션에는

Kiaf SEOUL 2025 특별전 <리버스 캐비닛>을 기획한 윤율리 큐레이터(한민미술관 학예실장)가 모더레이터로 나서고, 패널로는 특별전 공동 기획 이와타 도모야 The 5th Floor 디렉터 겸 큐레이터, 푸랏(장) 오사타누그라 박주미 정신과 전문의, 브라이언트 차오 컬렉터 겸 Bryant Chao Visual Studio 대표가 함께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프로그램은 총 9개 세션으로 구성돼 예술재단, 이사장, 큐레이터, 미술관, 사회 참여예술, 한국 미술 시장, AI와 창의성 등 동시대 미술의 주요 의제를 다룬다. 8 방콕 도심의 차이나타운에 자리한

독특한 아트 스페이스인 방콕 쿤스트할레의 상영 공간, 한국계 태국인 자선사업가이자 문화 예술 후원자 마리사 찌아라와논(Marisa Clearavanont)이 설립했다. 9 지난 9월의 생생체를 아우르는 의미에서 '대지의 어신' 기이아를 활용한 'Nurture Gaia'라는 주제로 방콕 아트 비엔날레(BAB) 2024가 열리고 지난 2월 초 BACC 건물 앞 애와 공간에 설치된 최종화 작가의 설치 작품 'Breathing Flower'. 10 대니수 국민이 불교 신자인 나리답게 연꽃 연꽃을 모티브로 삼은 건축 디자인의 눈길을 끄는(실제로는 모녀의 정원에서 영감받았다고 한다) 방콕현대미술관(MOCA 방콕).

11 짐 톰프스 아트 센터에서 지난 2월 진행된 알제리-프랑스계 작가 카트리나 아티아(Kader Attia)의 개인전. ※3, 4, 7~11 Photo by 고성연



SY '문 마리사'의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계기로 오랜 만에 방콕을 방문해 도시의 문화 예술 풍경을 접하고 범상치 않은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태국의 심장 같은 도시로서 방콕의 진짜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Chang 딥 방콕을 만드는 건 여러 세대가 걸쳐 이뤄진 여행이었으며, 저는 가문의 문화적인 유산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컬렉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30년 넘게 수천 점의 작품을 소장해왔는데, 대부분은 해외 작가이고 일부는 태국 현대미술의 선구자 격인 몽티엔 분마(Montien Boonma)를 비롯한 태국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저희에게 이 수집의 여정은 더 깊고, 성찰적이고, 사색적이고, 명상적인 무언가에 향한 청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는 친유의 여정이었죠.

SY 학계에도 소속된 만큼(방콕대학교를 이끄는 총장으로서), 미술관과 교육적인 연계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을지요?

Chang 그렇요. 제 생각에 많은 아시아 국가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국가적 유산인 예술과 과학, 기법을 창의성과 예술 전반에 접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양의 것을 배우지 않았고, 우리만의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방콕대학교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갤러리, 기타 기관, 박물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양 주도의 일원적 모더니즘이 아닌) '다원적 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을 중시합니다. 다양한 사상과 현대적 실천이 이제 막 깨어나 수 세기 동안 각자의 문화나 국가의 예술적 실천에 존재해온 것을 활용하고 되살리는 다양한 모더니즘이 있으니까요.

SY 사실 현대미술은 흔히 난해하다고 편장을 듣기도 하는데, 태국 대중이 도시의 문화 예술적인 변화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합니다.

Chang 미술 박사 학위 소지자라면, 이미 깊이 파고들었다는 걸 알면서 (미술관에) 들어갑니다. 마치 예술계의 스쿠버다이버처럼 말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 수영을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수영하길 바리지만, 그들을 깊은 수영장에 던져 넣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부 관객들이 우리 박물관에 와서 "작품이 왜 좋은지 알지 못해, 제 취향은 아니에요"라고 말한다면, 저는 정말 기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금전적 부를 넘어서 진정한 부(富)입니다. 문화적, 창조적 부죠. 글 인터뷰 고성연

SY '날것 그대로의' 또는 '자연스럽고 진정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딥(Dib)'이란 이름은 품은 새 미술관은 부친의 꿈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사립연도로 마치 공공의 역할을 하듯 방콕 최초의 현대미술관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네요.

Chang 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희는 태국과 세계를, 그리고 세계와 태국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중증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 일종의 '상수'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깊은 예술 세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관객을 양성하고, 예술에 호기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저희의 비전은 태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국제 미술, 국제적인 서사와 의식을 보기 위해 비행기에 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적이고 역사적인 측면도 있고요. 하지만 관객을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현대미술을 세대를 초월해 누구나 쉽게 접하고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2025바다미술제

바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다대포 예술 여행

드넓은 갯벌과 부드러운 해안선, 멋진 일몰로 유명한 다대포. 2025 바다미술제는 부산의 남서쪽 끝에 위치한 다대포해수욕장을 무대로 '물 위를 걷는 물결들(Undercurrents)'이라는 주제의 바다 여행을 제안한다(오는 11월 29일까지).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김금화 공동 전시 감독은 "바다미술제는 다대포에서 잊힌 공간을 재소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여러 번 항만 개발을 위한 매립 위기에 놓였다가 시민들의 지속적인 반대 운동으로 보존된 다대포의 해변은 그간의 기억을 들려주는 듯했다.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자리한 다대포해수욕장부터 몰운대 해안 산책로, 살아 있는 해안 생태계를 만날 수 있는 고우니 생태길,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조성한 산업 시설이었던 다대 소각장까지 거닐며 환경과 생태,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작가들의 작업을 접하는 여정. '걷는 길 자체가 예술적'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닐까?

걷는 걸 자체가 예술적이라는 표현은 아닐 때즈는 것 아닐까?



1 김상돈, '알 그리고 등대'(2025). 철, 방울, 종, 거울, 프레넬 렌즈, 단청 채색.

2 마리 그리스마, '호수 여행' 시리즈(2024). 6개의 유약 처리한 스톤웨어 조각, 가변 크기. ©미하 바움

3 플라스틱크 판타스티크, '풀리미터'(2025). 폴리우레тан 필름, 기장 다시마, 사운드, 승송풍. 4 마르코 바로티, '표류하는 소리'(2025). 세리믹, 단산칼슘, 태양광 패널, 가변 크기. ©Marco Barotti

5 라을 발히, '나름은 누구의 것인가?'(2025). 대나무, 섬유 인쇄, 스테인리스강.

6 송 수파파린야, '점들의 공연장'(2023). 3M 반사 시트, 헤드램프, 마른 씨앗, 옥수수, 가변 크기. 사진 카린 몽콘판, 치앙마이 Gallery Seascapes에서 촬영.

7 이진, '경계의 고리'(2023~2024). 층류 생성 장치, 전자회로, 연무기, 메탈 프레임. 8 하이케 카비슈, '케이시(부분)', 2024, 아크릴 수지|아크리스탈, 안료, 점토, 섬유, 금속. 사진 야마미 아와즈하라.

9 오미자, '씨앗굴리기'(2025). 작가 지시문, 인쇄 및 디지털, 가변 크기.

각하는 이탈리아 작가 마르코 바로티는 다대포 해변의 지형과 조개껍데기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생성한 뿐 같은 형상을 한 자신의 스피커 조각 '표류하는 소리'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스위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마리 그리스마도 생태계 현장 조사 방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는데, '물과 물 사이의 초록'은 바다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묘사한 도자기 조각 작품이다. 수중 관람도 가능하다는 점(스노클링 세션)이 재미나다. 다양하고 풍부한 식물성 플랑크톤이 낙동강을 따라 흐르다 다대포 하구에서 해양 멕 이사슬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에서 영감받은 작가는 산호초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 'reefs'의 공동 창립자다.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든 대형 재활용 플라스틱 카펫 작품을 선보인 마티아스 케슬러와 아멧 치밸렉은 버려진 플라스틱에 주목했다. 이들은 다대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부산 전역에서 수거한 폐포장재와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료로 대형 카펫을 직접 손으로 엮었다. 쓰레기와 공예의 경계를 허문 작업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기'는 바람이 불 때마다 파도처럼 일렁이며 생생한 패턴과 리듬을 만들어낸다. 다대포, 마요르카, 뉴욕의 해변에서 각각 수집한 모래 알갱이로 작품을 만든 지비 리와 필립 C. 라이너의 작품은 마치 아테네의 어느 신전에 도착한 듯한 느낌을 준다.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국 태생 예술가 지비 리와 건축가 출신의 독일 기하학 연구자 필립 C. 라이너는 오랜 시간의 흔적을 품고 있는 모래가 지구를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의 아카이브라고 생각한다고. 다

卷之三



파티나 오사카(Patina Osaka) 호텔



a) 호텔

도심 속 럭셔리 웰니스의 흐뭇한 예

'물의 도시'라는 수식어를 지닌 오사카는 국제공항을 끼고 있는 간사이 지방의 관문 도시다. 그런데 일본의 주요 도시치고는 브랜드만으로도 언뜻 호기심을 자아낼 정도의 럭셔리 호텔은 많이 눈에 띄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아무래도 천년 고도인 교토에 몰려 있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반세기 만에 다시 열린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를 계기로 새 얼굴들이 등장하면서 도시의 호텔 풍경을 제법 흥미롭게 바꿔놓았다. 호텔업계는 줄지어 입장하는 엑스포 방문객들 덕분에 쾌재를 부를 만한 특수를 누렸지만, 그중에는 반짝 호황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받을 여행자의 공간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지난 5월 모습을 드러낸 아래 차근차근 존재감을 쌓아가고 있는 파티나 오사카(Patina Osaka)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유심히 봐둘 만한 참신한 럭셔리 호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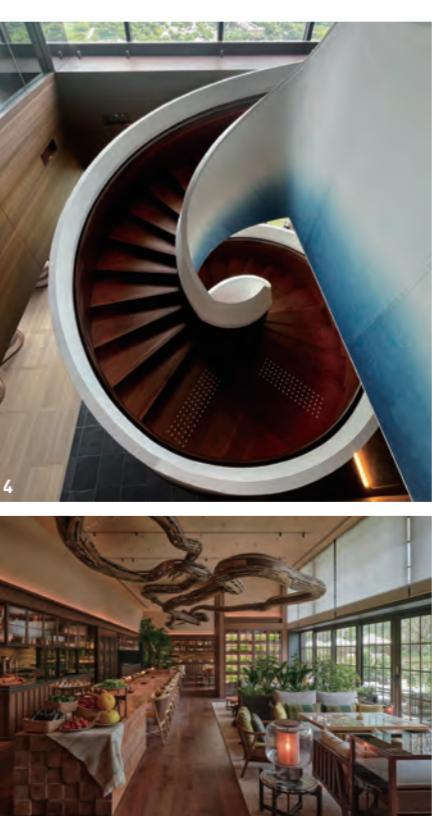
요즘 글로벌 호텔업계에서 예의 주시받고 있는 카펠라 호텔 그룹에서 웰니스의 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결의 력셔리 브랜드로 선보인 파티나(Patina), 파티나 오사카는 몰디브에 이은 두 번째 주자다. 2백21개 객실과 스위트룸을 품은 21층짜리 뉴 페이스 호텔이 내세우는 가장 두드려진 특장점은 '전망'이다. 20층에 자리한 리셉션에서 체크인을 하면서 고스란히 천인상이 되기도 하는 도시의 명물인 오사카 성이 한눈에 차르륵 감겨 들어온다. 고혹적인 성의 자태는 스파, 피트니스, 레스토랑 등 다양한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데, 성을 내려다보며 가만히 감상하노라면 작은 인형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총총걸음으로 오가는 동선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관람을 반쯤 마친 듯한 기분이다. 가까이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시야를 선사하는 전망을 더 자주 누리고 싶은 여행자라면 객실 선택 시 '캐슬 뷰'를 꼽할 만하다. 오사카 성과 더불어 울창한 녹색의 스펙트럼이 천연하게 펼쳐지는 나니와노미야 공원도 파티나 오사카에 힐링의 감성을 더해준다.

까지 날카로운 직각이 아니라 둥그스름하다. 자연에 직선은 없다고 했던가. 실제로 호텔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은 준 미쓰이 & 어소시에이츠 아키텍츠와 스트리틀랜드는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오사카 성의 해자(垓子)에 흐르는 물과 지붕을 장식한 동판 등 오사카 성의 건축적 요소를 통합해 유산과 현대성이 어우러진 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했다고.

그다음에는 재료의 미학이 점차 눈에 들어온다. 지역성과 역사성을 존중하는 현지의 소재 활용이라든지 자연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담담하게 표현하는 색조,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철학을 두루 읽어낼 수 있다. 호텔 내 소담스러운 식물 정원에서 재배한 채소와 허브 등을 식재료로 쓰는 레스토랑인 'P72'의 천장에는 길이가 52m나 되는 나무 조각 '뿌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나니와노미야 공원의 나무와 토양에 영감받아 공장에서 나온 폐목재로 만든 작품이고, 이 밖에도 가기와현의 폐선에서 얻은 고철로 만든 꽃병, 세토우치 지역의 돌로 만든 조각 등 공간을 채우는 요소 중

자연미 품은 곡선과 소재를 투영한 디자인의 미학
이처럼 호텔이 벗하고 있는 자연은 단지 전망을 넘어
내부 공간으로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영감의 원천이
다. 숨통을 확 트여주는 시원한 전망이 곳곳에서(사운
드 아티스트 데본 턴불의 기기로 음악 감상이 가능한
리스닝 룸, 라운지, 상당수의 객실 등) 마치 병풍처럼
감싸주는 가운데, 패티나 오사카의 내부는 새 호텔다
운 싱그러움을 품은 채 주목할 만한 강점을 차근차근
드러낸다.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인상적으로 다가온
요소는 '곡선'이다. 전반적으로 나무 톤을 입히거나 목
재를 써서 밝고도 다정한 분위기를 토대로 유려한 '선
의 미학'이 스며들어 있다. 20층 라운지와 스페인 레
스토랑 이나키가 있는 19층을 이어주는 나선형 계단
이라든가 고운 곡선을 띠는 가구와 작은 오브제는 현
대적이면서도 어딘지 자연스러운 안정감을 자아낸다.
심지어 욕실의 작은 선반 모서리, 욕조에 놓는 독서대

적인 감각으로 반영되어 있다. 또 로비 공간의 얼굴 같
은 나선형 계단 난간의 소재는 일본식 인디고 염색을
한 종이 '와시'다. 일상의 익숙한 사물을 다른 시각으로
담아낸 소위 '미다테' 정신과 전통에 대한 사랑을 지속
가능한 현대성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자세가 느껴진다.



울봄부터 손님을 맞이한
아심형 렉서리 웰니스 호텔
파티나 오사카(Patina Osaka)
는 임도적인 오사카 성 전망을
바라한다. 2 파티나 오사카는
카펠라 호텔 그룹에서 아심
에게 선보인 브랜드인 파티나의
두 번째 공간이다. 서울에서도
제정된 카펠라 레지던스의
동장으로 주목받는 카펠라는
22층 렉서리 호텔 생태계에서
주거를 올리고 있다.
2백21개 객실과 스위트룸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사카 성과
녹음 짙은 나니와노미야 공원을
바라보고 있다. 오사카 성 전망을
제공하며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하고
편리한 의자나 데이베드에서
나같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객실에 비치된 불펜 심도 녹색
커러일 만큼 디자일이 빠어나다.
20층 라운지와 조식 공간이자
어느에는 창의적인 파인
아이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
파티나(NAK)가 자리한 19층을
이어주는 나선형 계단. 인디고
녹색을 한 와시 종이를 재료로 한
간이 특색 있다. 5 호텔 내 식용
물을 정원에서 직접 공수하는
신선한 계절 식재료를 쓰는
팜-투-테이블 레스토랑 P72.
불과 2~3분 내에 출중한 신체
복 효과를 내는 크라이오
케라피 등 첨단 헬스 기기와
아심한 웰니스 분위기를 겸비한
스파, 아름다운 풀도 호텔의
부심이다. 웰니스 혁신의
여러 깊은 적용을 기치로 삼는
브랜드로 파티나 오사카는
객실, 디자인, 음악의 세계를
다양스럽게 엮어내며 창의적
현과 영적인 웰빙이 조화롭게
나는 안식처를 제공하겠다는
夙성을 지니고 있다.

티나는 동판 같은 금속 표면이 부식되면서 자연스러운 녹색을 띠는 걸 의미하는 단어다. 달리 말하면 이정(綠青)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이뤄지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뜻한다. 이 단어가 매우 잘 어울리는 파티나 오사카에는 새 호텔 특유의 어수선함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뤄나가는 모양새가 편안하게 다가오는 이 공간은 마치 P72의 세분화된 경기를 담은 섬세한 다이닝(미세 계절 요리)의 스펙트럼처럼 요란하지 않게, 이들이 내세우는 '기세쓰칸(일본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개념)'을 반영하며 천천히 여겨갈 것이다. 다시 찾아갈 즈음이면 공간 곳곳에 묻어나기 시작할 녹청의 고유한 색감이 궁금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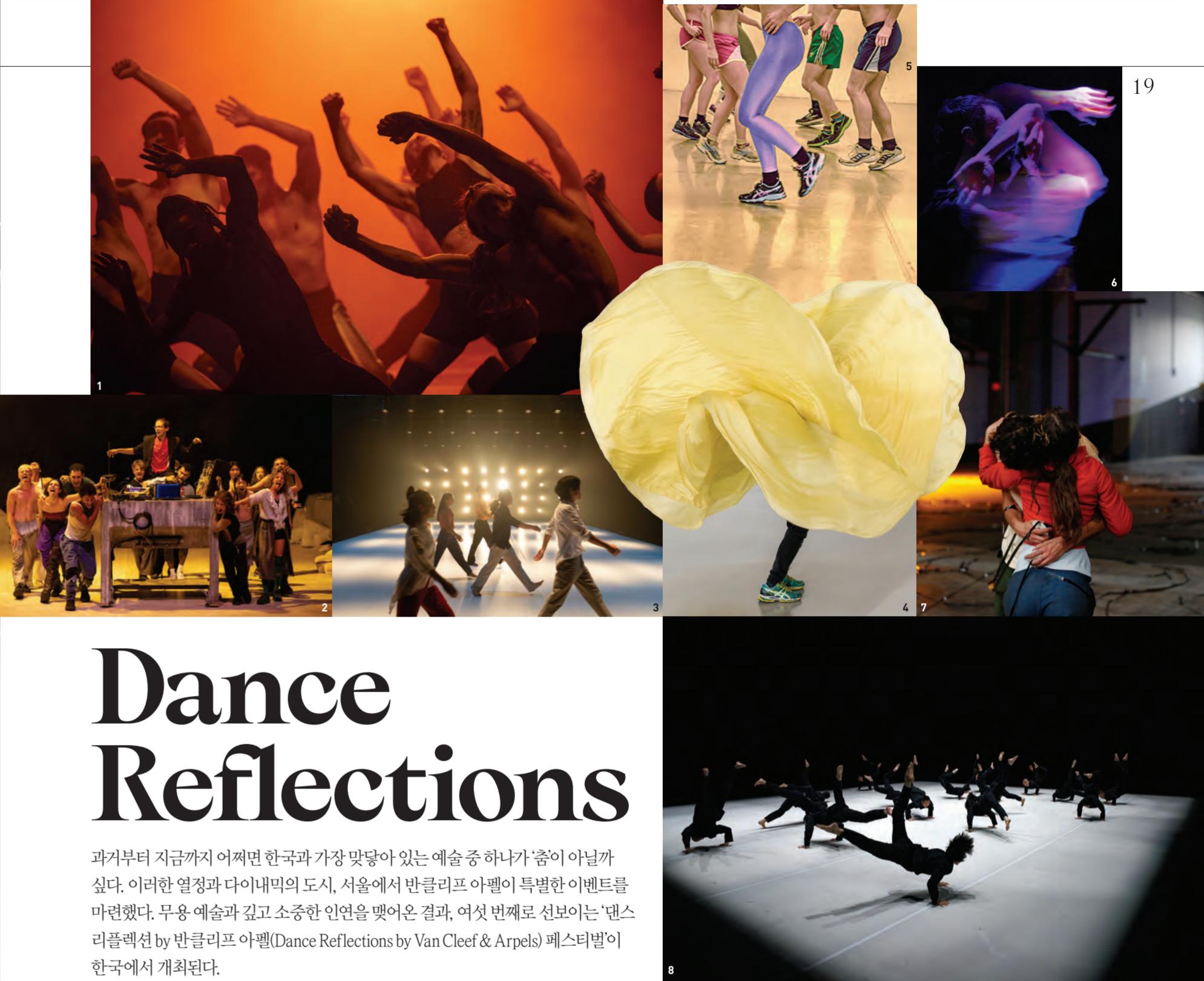
More Delicate

덧없는 반짝임보다 말라카이트, 터퀴이즈, 오닉스, 토파즈, 큐츠 등 유색 주얼리의 정제된 우아함에 더 마음이 간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UNG

아티스트 김민

(가운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미아니 마르게리타
네크리스 보랏빛 애미스스트와 다이아몬드로 아름다운 꽃을
표현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불가리 디바스
드림 브레이슬릿 로즈 골드 소재의 오픈 링을 양 끝에 부채
모티브의 그린 말라카이트와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세팅했다.
1차2백20만원 문의 02-6105-2126 프로드 빙 드 쉬크르
스모키 큐츠 핑크 골드 링 블드한 핑크 골드 링에 카보숑 컷
스모키 큐츠를 입체감 있게 세팅하고 그 주위를 다이아몬드로
촘촘하게 마무리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514-3721
다울 파인주얼리 로즈 드 뱅 브레이슬릿 오닉스, 터퀴이즈,
말라카이트, 핑크 오펠, 자개 등 다양한 원석을 차례대로
세팅해 주얼리의 화려한 면을 배가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래포시 양티페 터퀴이즈 핑크 골드 스타드
아이링 터퀴이즈 원석을 활용한 세이프로 크고 정교하게
구현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426 부쉐론 세컨 보헴
핑크 큐츠 앤스 스몰 팬던트 트위스트 핑크 골드 체인에 드롭
모티브의 핑크 큐츠를 세팅하고, 바로 위쪽 상단에 라운드
다이아몬드 하나를 세심하게 세팅해 우아한 면을 강조했다.
2백만원대 문의 02-3277-0148 포렐라토 누드 빼띠 링
투명하고 맑은 화이트 토파즈를 비정형으로 커팅해 원석
고유의 광채를 배가했으며 그 주변을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화사함을 더했다. 가격 미정. 문의 0030-8321-0441
에디터 김하얀



Dance Reflections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한국과 가장 맞닿아 있는 예술 중 하나가 '춤'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열정과 다이내믹의 도시, 서울에서 반클리프 아펠이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무용 예술과 깊고 소중한 인연을 맺어온 결과, 여섯 번째로 선보이는 '댄스
리플렉션 by 반클리프 아펠(Dance Reflections by Van Cleef & Arpels 페스티벌)'이
한국에서 개최된다.

무용은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의 무한한
영감의 대상이다. 메종에서 출시하는 하이 주얼리 컬
렉션에서는 발레리나를 형상화한 클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반클리프 아펠과 무용계의 밀접한 인연의
시작을 따라가 보면 1920년대 파리로 거슬러 올라
간다. 발레에 대해 깊은 열정을 지녔던 루이 아펠
(Louis Arpels)은 조카 클로드 아펠(Claude Arpels)을
방동 광장 부티크에서 멀지 않은 파리 오페라 가르니
에로 데려가곤 했다. 1940년대 초 메종 최초의 발레
리나 클립이 탄생했고, 빠르게 반클리프 아펠을 대표
하는 시그너처가 되었다. 이후 클로드 아펠과 안무가
조지 발란신(George Balanchine)의 만남 뒤 메종과
무용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프레스스 스톤주 로랑
(Serge Laurent)이 맡았다. 그는 이 페스티벌의 한국
개최를 위해 지난 몇 년간 서울 국제공연예술제(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SPAF)와 협업을 이어왔다.
그 덕분에 안무 예술에 대한 열정을 중심으로 다채로
운 관점을 표현하는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이 한자리
에 모이는 이벤트를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었으며, 한
국 무용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양한 문화
간의 교류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번 '2025 댄스 리플렉션 by 반클리프 아펠 페스티벌'
에서는 전통과 현대성이 조화를 이루는 안무 예술에
대한 깊은 헌신을 담은 9팀 무용수들의 10개 작품이
예정되어 있다. 전통과 현대성을 독특하게 담아낸
'16&17'을 선보이는 타오 댄스 시어터(TAO Dance
Theater)부터 전자음악과 안무를 결합해 오늘날의 무
질서한 세상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라)오흐드((LA)
HORDE)와 마르세유 국립 발레단(Ballet National de
Marseille)의 '룸 워드 어 뷔(Room with a View)', 현대

Cleef & Arpels) 페스티벌'을 출범하며 무용 예술을 향
한 자신의 헌신을 공고히 했다. 반클리프 아펠이 오랜
시간 지속해온 이 협업이 올해 드디어 한국에서 처음
으로 선보인다. 2022년 3월 런던, 2023년 5월 홍콩,
10월 뉴욕, 2024년 10월 교토에 이은 여섯 번째 행
사다. 이 행사를 통해 반클리프 아펠은 국제적 명성을
지닌 무대에서 무용단의 작품을 발표하게끔 하고 다
양한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한
다. 이로써 창작 및 안무의 육성과 더불어 전승과 교
육이라는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알린다. 이번에 한국
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은 2019년 4월에 합류해 무용
분야를 향성한 메종의 헌신을 한층 굳건히 하는 업무를
담당한 댄스 및 문화 프로그램 디렉터 세르쥬 로랑
(Serge Laurent)이 맡았다. 그는 이 페스티벌의 한국
개최를 위해 지난 몇 년간 서울 국제공연예술제(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SPAF)와 협업을 이어왔다.
그 덕분에 안무 예술에 대한 열정을 중심으로 다채로
운 관점을 표현하는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이 한자리
에 모이는 이벤트를 한국에서 개최할 수 있었으며, 한
국 무용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양한 문화
간의 교류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
번 '2025 댄스 리플렉션 by 반클리프 아펠 페스티벌'
에서는 전통과 현대성이 조화를 이루는 안무 예술에
대한 깊은 헌신을 담은 9팀 무용수들의 10개 작품이
예정되어 있다. 전통과 현대성을 독특하게 담아낸
'16&17'을 선보이는 타오 댄스 시어터(TAO Dance
Theater)부터 전자음악과 안무를 결합해 오늘날의 무
질서한 세상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라)오흐드((LA)
HORDE)와 마르세유 국립 발레단(Ballet National de
Marseille)의 '룸 워드 어 뷔(Room with a View)', 현대

1 마르코 다 실바 페레이이라
의 '카르카사'. © Sommerscene
Bernhard Mueller 2 마르세유
국립 발레단의 '룸 워드 어 뷔'.
© Ryo Yoshimi Courtesy
of Kyoto experiment

3 히

프로젝트의 '1도씨'.

© Asia Culture Cente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4 올라

마시아에프스카의
'로이 풀러: 리서치'. © Martin
Argyroglo 5 안 마르텐스의
'도그 데이즈 오버 2.0'.

© Alwin Poiana

6 '마지막
춤은 나를 위해를 선보이는
알렉산드로 시아로니:
© Umberto Favreto 7 네모
플루레의 '900 며칠, 20세기의
기억'. © Philippe Lucchese

8 타오

댄스 시어터의 '16&17'.
© Hai Yang 9 '댄스 리플렉션
by 반클리프 아펠(Dance
Reflections by Van Cleef &
Arpels) 페스티벌' 키 비주얼.



무용의 선구자 풀리의 유산에 매료되어 탁월한 작품을
창작해낸 폴란드 아티스트 올라 마시에에프스카(Ola
Maciejewska)의 '로이 풀러: 리서치(Loie Fuller: Research)' 등. 이외에도 알레산드로 시아로니
(Alessandro Sciarroni)의 '마지막 춤은 나를 위해(Save
the Last Dance for Me)', 로빈 오를린(Robin Orlin)의
'바퀴를 두른 사람들(We Wear Our Wheels with
Pride)', 안 마르텐스(Jan Martens)의 '도그 데이즈 오
버 2.0(THE DOG DAYS ARE OVER 2.0)', 마르코 다
실바 페레이라(Marco da Silva Ferreira)의 '카르카사
(CARCAÇA)', 네모 플루레(Némo Floure)의 '900 며
칠판, 20세기의 기억(900 Something Days Spent in
the 20th Century)'까지, 물론 2023년부터 서울국제
공연예술제의 협력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한국인 무
용가 하성임의 작품도 있다. 그는 주최국인 한국을 기
념하는 의미로 '1도씨(1 Degree Celsius)'를 통해 지구
온난화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공개한다. 10월 16일부
터 11월 8일까지, 3주간 펼쳐질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댄스 리플렉션 by 반클리프
아펠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 또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티켓 예매는 아
르코·대학로예술극장, 세종문화회관 등 각 공연장 총
페이지와 NOL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
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댄스 리플렉션 by 반클리프
아펠 페스티벌'은 안무 예술에 대한 열정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관점을 표현하는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이벤트다. 다시없을 이 특별한 프
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한국 무용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양한 문화 간의 교류를 직접 경험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문의 1877-4128 에디터 성정민

Out of Sight

남자의 스타일을 정의하는 아이 웨어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양옆으로 긴 형태감이 세련된 무드를 자아내는 카키 컬러의 반투명 아세테이트 소재 스퀘어 프레임 아이 웨어 슬릭 KC1 30만원 젠틀몬스터. 문의 1600-2126

클래식한 세미 스퀘어 프레임의 블랙 컬러로 시크하고 모던한 매력을 선사하는 아세테이트 소재 안경테 49만4천원 프라다 by 에실로록스토리카. 문의 02-501-4436

프리미엄 티타늄 소재로 가벼운 착용감과 감각적인 느낌을 선사하는 원형 안경테. 스마트한

분위기 연출을 돋는다. 23만원 레이벤 by 에실로록스토리카. 문의 02-501-4436

클래식한 디자인의 은은한 그레이 컬러 그레이데이션으로 완성해 부드럽고 우아한 무드를

배가한다. 57만원 페라가모 아이웨어 by 롤리티스. 문의 1599-3016

세련된 실루엣에 섬세한 디테일이 어우러진 LV 에센셜 스퀘어. 템플의 골드 톤 시그너처 장식과 끝부분의 모노그램

플라워 인그레이빙 디테일로 스타일리시함을 더했다.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얇게 완성한 오버사이즈 스퀘어 프레임으로 가벼우면서도 멋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다. 블랙과 화이트의 그레이데이션으로

조화롭게 완성한 에센셜 워터컬 프레임 아이 웨어 가격 미정 맥퀸. 문의 02-6102-2226 에디터 성정민

아이스팅트 김보민

엘로 스웨이드 소재 메다 백 3백16만원 토즈.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도토리 백 참 가격 미정
로에베. 둑근 실루엣의 라피아 소재 키링 87만원 둑체엔가비나. 밍크와 스웨이드 소재로 인형을 형상화한
키링 1백만원대 펜디. 비비안 패션스타 백 참 가격 미정 루이 비통. 호박 키링 가격 미정 로에베. 고양이
모티브 브사 드라 메종 키링 86만원 블렌티노 가라비나. 브라운 시어링 소재 미니 스트랩 유
1백만원대 펜디. 세제 용기를 구현한 양가죽 소재 스칸들리나 백 3백20만원 모스키노.



송아지가죽 플렉스 백 5백만원대 펜디.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브라스 소재 스파이럴 주얼리 가격 미정
르메르. 시어링 펜스킨 이어마프 가격 미정 샤넬. 그린 베이스볼 캡 81만원 셀린느. 야구공 모티브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프라다. 하트 백 참 17만원 디젤. 레드 비즈 네크리스 1백15만원 셀린느. 스피게티 백 참 80만원대
펜디. 닷 고리 모양 백 참 가격 미정 미우미우. 43mm 렌즈의 컴팩트 카메라 1천1백81만원 라이카.



Full Covered

주렁주렁 매달아야 미덕. 취향대로 완성한 일명 '백꾸' 스타일링 4.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나파 가죽 다다 백 가격 미정 프라다. (위부터 차례대로) 실크 소재 스카프 가격 미정 에르메스. 직사각 프레임의 아이
웨어 가격 미정 미우미우. 블랙 카프 스키니 메리 제인 슈즈 가격 미정 에르메스. 리본 모티브 메탈 브로치 가격 미정
미우미우. 헤리티지 루즈앤느와 수성펜 89만원 몽블랑. 어디트 립 글로우 버터 #103 5만원대 크리스찬 디올 뷰티.
플라워 참 장식 키링 가격 미정 디올. 키링으로 활용한 실버 컬러 네크리스 55만9천원 이자벨마랑. 파란 유리 조각이
포인트인 아이링 가격 미정 프라다. 블랙 웨스턴 벨트 가격 미정 르메르. 샤피아노 레더 캐비 노트 11만원 몽블랑.



버건디 벨벳 소재의 클래식 스몰 핸드백 가격 미정 샤넬. (위부터 차례대로) 트리옹프 로고 카프 스키니 백 참 1백5
만원 셀린느. 메탈과 글라스 펄 등으로 완성한 룰 네크리스. 펜스킨 소재 클래식 미니 백 참 모두 가격 미정 샤넬.
양가죽 글리브 73만원 페라가모. 가방 스트랩에 장식한 브라운 헤어 짚개 핀 66만원 셀린느. 에디터 김하안



둘체엔가비나 02-3442-6888 디올 02-3480-0104 디올 02-515-8770 라이카 1661-0405 루이 비통 02-3432-1854
르메르 070-4146-0220 모스키노 02-3448-1340 몽블랑 1877-5408 미우미우 02-541-7443 블렌티노 가라비나 02-2015-4655
샤넬 080-805-9628 셀린느 1577-8841 에르메스 02-542-6622 이자벨마랑 02-3277-0223 크리스챤 디올 뷰티 080-342-9500
토즈 02-3438-6008 페라가모 02-3430-7854 펜디 02-544-1925 프라다 02-3442-1831

Get

The

List

품격 있는 가을 여자의 감도 높은 셀렉션.
PHOTOGRAPHED BY JEONGSEOKHEON



IWC
전설적인 위치나이너 제랄드
젠틀가 선드 인 인제니어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로 기존
40mm 케이스 사이즈 제품을
35mm 사이즈로 재탄생시켰다.
섬세하게 마감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블랙 그리드 패턴
다이얼로 마감했으며 4710
칼리버로 구동한다. 1천4백80
만원 IWC. 문의 1877-4315



**RALPH LAUREN
COLLECTION**
빈티지 자동차 핸들에서 영감받아
수작업으로 조각한 버블, 메탈
손잡이와 토트백의 벨트 디테일이
돋보이는 백으로 미스터 로렌의
개인적 취향과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엿볼 수 있는 더 랠프
트트백 5백50만원 랄프 로렌
컬렉션. 문의 02-3467-6560



CHANEL WATCHES
건고한 블랙 세라믹 소재로 완성한
피스로 지름 33mm의 비트 블랙
코팅 스틀 케이스를 더하고 베젤,
인덱스에 핑크 컬러로 퍼트를 준
J12 블러쉬 칼리버 12.2 워치
사별 위치. 문의 080-805-9628



TIFFANY & CO.
전 솔лер버제 가문의 텍스타일
유산에서 영감받은 크로스 스티치
모티브가 특징인 티파니 식스티
스톤 다이아몬드 링. 플래티넘과
18K 골드에 총 1.14캐럿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했다. 가격 미정
티파니. 문의 1670-1837



CELINE
파리의 개선문을 감싸는
체인 형태에서 영감받은 링크
모티브 디자인인 트리옹프를
모노그램 형태로 패턴화한
캔버스로 아이코닉한 감성을
주는 턴 오노린 백 2백45만원
셀린느. 문의 1577-8841



LOUIS VUITTON
2025 F/W 여성 패션쇼에서
선보인 실루엣 앵클부츠.
돋보이는 나일론 메시 소재로
독특한 무드를 자아내며, 발목을
감싸는 가죽 스트랩에 아일렛과
LV 이니셜 스터드 장식으로
포인트를 더했다.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VALENTINO GARAVANI
우아하고 은은하게 빛나는
베인 유광 카프 스키에 V 로고
모티브를 매치해 모던하면서도
아이코닉한 감성을 가미한 베인
립 핸들 백 5백20만원 발렌티노
가리비니. 문의 02-2015-4655



TOD'S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메탈 바
디테일인 바레타 장식이 돋보이는
로퍼로 매력적인 브라운 컬러와
현대적 감정을 더한 카프 스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1백39만원
토즈. 문의 02-3448-8233
에디터 성정민

THE

가을 재킷으로 완성하는 파워풀한 뉴 레이디 룩. PHOTOGRAPHED BY HWANG BYUNG MOON

LADY



비로크 밸벳 테일러드 재킷과 팬츠, 벨벳
자카드 틈, 레더 프린지 펌프스, 스타
페이브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베버리.



더블브레스트 코트, 보디수트,
테일러드 팬츠, 블랙 스트랩 샌들
모두 가격 미정 품 포드.
골드 이어링 29만원 그레이엘린.

프랑시옹 재킷, 올 소재 스커트,
목에 두른 벌기한 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풍클레르 + 질 샌더.
시어링 슬라이드 2백만원대 펜디.



시퀸 트위드 소재 코트, 월 소재
드레스, 미스드 파이버 & 페인트
카프 스킨 소트 부츠, 목에 두른
메탈 & 글라스 펄 & 스트리스 소재의
벨트,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사넬.

오버사이즈 더블브레스트 재킷
4백75만원 더블 슬릿 세널 펜슬
스커트 2백25만원, 니트 점프수트
가격 미정, 재킷에 달고 있는
트리플 간자니 크리스탈 이어링
55만원 모두 **페리가모**.
카키 컬러 하이 부츠 가격 미정 **아미**.

더블브레스트 세틀랜드 올 코트
1천1백만원, 브라운 레더 로퍼
1백76만원, 실크 니 썩스
가격 미정, 그레이 헛
가격 미정 모두 **미우미우**.



캐멀 컬러 재킷 가격 미정 랄프 로렌
컬렉션. 캡 스킨 소재 드레스, 블랙 카프
스킨 소재 부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골드 이어링 27만원 그레이엘린.

샤넬 080-805-9628
펜디 02-544-1925
로저 비비에 02-3479-6115
그레이엘린 010-8815-8467
버버리 080-700-8800
톰 포드 02-6905-3640
몽클레르 + 질 샌더 030-8321-0794
페라가모 02-3430-7854
아미 02-6956-8782
미우미우 02-541-7443
랄프 로렌 컬렉션 02-3467-6560
에르메스 02-542-6622



플리스 올 소재 블루종 1천4백만원대,
스커트 2백만원대 모두 펜디. 새틴
소재의 샌들 1백56만원 로저 비비에.
골드 이어링 33만원 그레이엘린.

헤어 마준호
메이크업 이아영
모델 Asja (J Model)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Skin Future

간결하고 산뜻한 제형으로 수분 공급은 물론 안티에이징에 탁월하다. 활력 넘치는 뷰티 루틴을 위해 유효 성분을 아낌없이

추가한 남성 스킨케어. PHOTOGRAPHED BY **PARK JAE YOUNG**



(위부터 시계 방향) 아우구스티누스 바더 더 리치 아이 크림 브랜드 자체 개발 성분인 TFC8®과 아생 온당 뿐만 추출물 등을 함유해 피부 재생 능력을 높이고 눈가 탄력을 강화한다. 15ml 29만5천원대. 문의 02-6904-0589
시세이도 맨 토탈 리바이탈라이저 크림 앤 다양한 형태의 주름, 칙칙한 톤과 피붓결, 떨어진 탄력 등 남성 피부의 노화 증상을 집중 케어한다. 이 모든 건 뻬른 흡수를 돋는 산뜻한 크림 제형과 라이스 브랜 테크놀로지™ 성분 덕분. 50ml 9만3천원. 문의 080-564-7700
풀라초이스 클리니컬 프로 레티날 트리트먼트 강력한 항산화제인 레티날 성분을 캡슐화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티에이징 효과를 높였다. 이 밖에 석류 과피 추출물, 바이오 밤효 혼합물 등을 함유해 모공, 피붓결, 잔주름까지 개선하며 광채를 부여한다. 30ml 9만8천원. 문의 1661-6656 비오템 아쿠아파워 울인원 스틱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수분을 충전할 수 있는 스틱형 스킨케어 제품이다. 끈적임, 번들거림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쿨링 텍스처가 특징이며, 갑작스럽게 달아온 피부를 쿨 다운시킨다. 9g 4만2천원. 문의 080-801-3304 랩시리즈 안티-에이지 맥스 LS 워터로션 빠른 흡수를 돋는 워터 타입 토너로 남성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충전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한다. 매일 아침과 저녁, 세안 또는 면도 후에 얼굴부터 목까지 부드럽게 도포한다. 200ml 9만4천원대. 문의 1644-3784 클라랑스 맨 수퍼 모이스처 젤 운동과 찾은 면도로 손상된 남성 피부를 위한 저자극 젤 타입 로션. 하이드라-리지스트 피토 복합체와 안티-폴루션 복합체 덕분에 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뛰어난 보습 효과를 제공한다. 50ml 6만5천원. 문의 080-542-9052 크리스챤 디올 뷰티 소바쥬 세럼 뜨거운 사막에서 자란 선인장의 핵심 성분을 가득 담아 피부 진정과 케어는 물론 피부 장벽 강화에 효과적이다. 밀도 높은 쪼쫀한 제형이 바르자마자 산뜻하게 흡수되니 스킨케어 특유의 끈적임을 기피하는 남성에게 제격일 수밖에. 50ml 12만원대. 문의 080-342-9500 에디터 김하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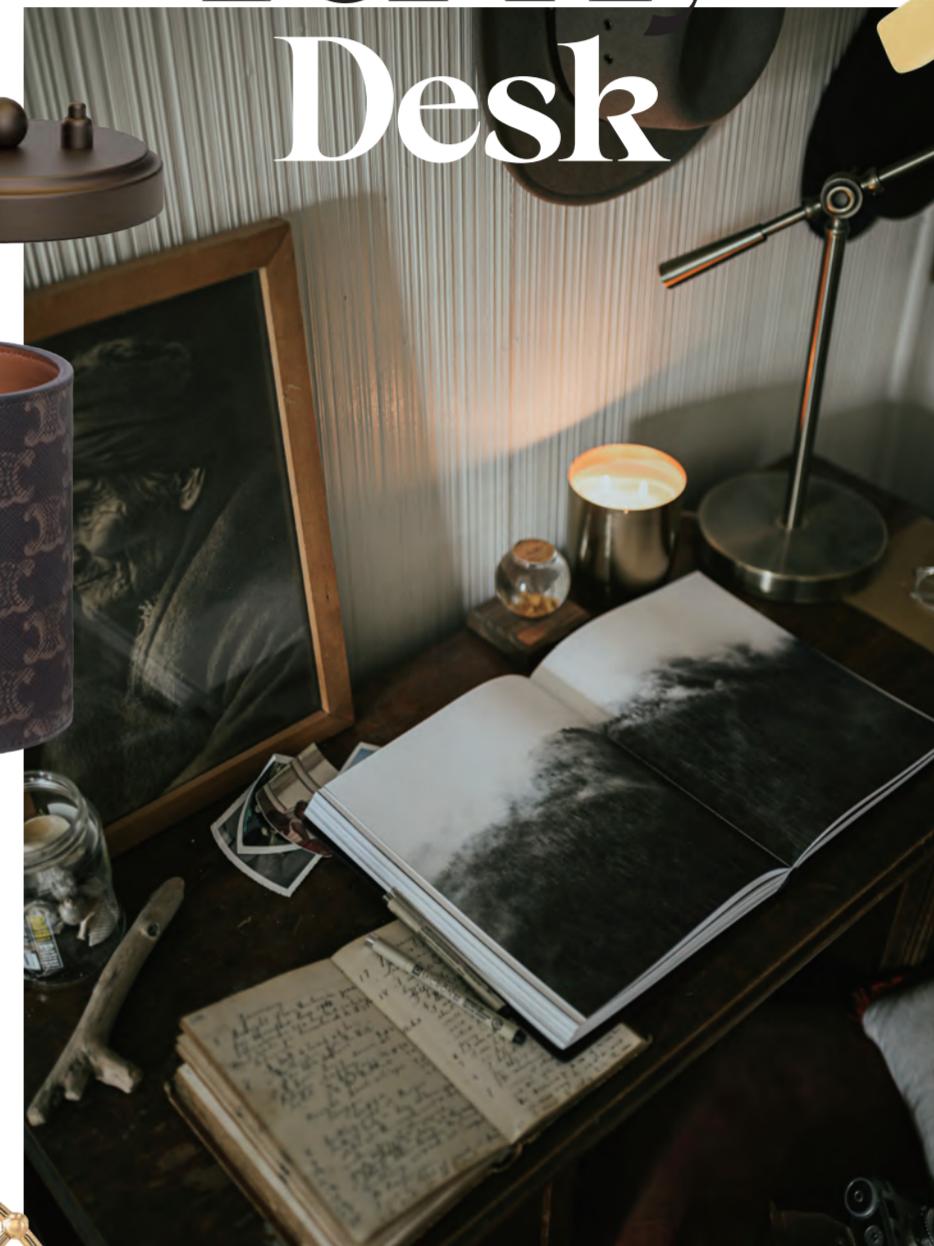
10. *Leucosia* (Leucosia) *leucostoma* (Fabricius) (Fig. 10)

내부에 필기도구용
트레이가 있고 리드를
접어 내려서 블로터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터 박스 가격 미정
랄프 로렌 흄. 문의
02-6004-0220



동근 달에서 영감을 얻어 어두운
책상 위를 환하게 밝혀줄
PH 2-2 루나 에이지도 브라스
테이블 1백96만7천원 **루이스풀센**.
문의 070-4242-1874

For My Desk



데스크 무드를
감각적으로 완성해줄
트리옹프 캔버스
소재 펜슬 홀더
가격 미정 셀린느.
문의 1577-8841



래커우드 소재의
말 모양 문진
87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지구본처럼 회전하는 장식
오브제 LV 모노스코프.
16.2×17×7.8cm, 2백97만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GG 모티브가 돋보이는
더블 G 라지 노트북
가격 미정 구찌. 문의
02-3452-1921



데스크를 한층 정돈해줄
브라스 소재의 25 펜더
시가커터 스탠드 60
만원대 에스. 티. 라운드
문의 02-2106-3577

책을 깔끔하게 정리해줄
고양이 모양의 실버
비고 북스탠드 13
만원대 알레시. 문의
02-6299-5684



디올 뷰티 루즈 딜올 온 스테이지
#425 와일드 로즈우드 입술
편안하게 감싸며 윤은한 광채감을
부여하는 딥한 기운 무드의 로즈
컬러라 메이크업에 은은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2.2g 5만9천원대.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신정임

Editor's Pick

짙은 가을 컬러 팔레트와 향수, 그리고 피부 속 건강함을
채워줄 스킨케어까지, 편집부 에디터가 엄선한 뷰티 리스트 10.

PHOTOGRAPHED BY YOON JI YOUNG

NEW SKINCARE

라프리 뷰어 골드 리뉴얼라이징 에센스 최근 리뉴얼된 뷰어
골드 컬렉션. 에센스 하나만 발랐을 뿐인데 골드 팩을 한 듯 다음 날
확실히 개선된 피부를 확인할 수 있다. 130ml 71만4천원대.
문의 02-6390-1170 _by 에디터 신정민



겔링 웅브르 G #520 스텔라 글로우
메탈릭 실버, 세틴 브라운, 매트 누드,
월 골드 컬러를 블렌딩하거나
레이어링해서 화려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8g 13만2천원.
문의 080-343-9500 _by 에디터 신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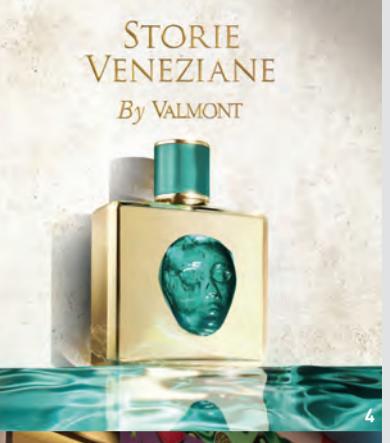
딥티크 플레르 드 뽀 솔리드 퍼퓸 한 손에 들어오는
미니 사이즈의 고체 향수로 휴대성이 좋아
편리하게 향기를 입을 수 있다. 3g 10만2천원대.
문의 02-3446-7494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달바 비타 토닝 갈바닉 링클 아이
크림 갈바닉 기능의 커링 티이
피부에 달자마자 미세 진동을
일으켜 눈가 피부 속 깊숙이 유효
성분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느낌.
15ml 5만2천원. 문의
02-332-7727 _by 에디터 김하얀

이솝 루센트 페이셜 리파이너 각질 제거 성분인 PHA와 비타민을
담아 피부결을 정돈하고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워시오프 타입의
각질 케어 마스크. 주 2회 사용을 권장한다. 60ml 11만5천원.
문의 1800-1987 _by 에디터 신정임

펜할리건스 더 컷 EDP
브리티시 테일즈 컬렉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
영국의 테일러링 미학을
담아냈으며 민트와 사이프러스,
페발남의 조합으로 상쾌한 향을
선사한다. 100ml 32만5천원대.
문의 080-363-5454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서는 원산지 명칭 보호(PDO)와 지리적 표시 보호
(PG)로 대표되는 지리적 표시(GI) 품질 라벨과 생산
전 과정에서 엄격한 훈경 및 동물 복지 기준을 충족
했음을 보증하는 EU 유기농 라벨을 집중 조명했다.
문의 <https://colours-by-europe.campaign.europa.eu/ko>

6 샤넬 워치 프리미에르 아이코닉 체인 네크리스

워치 샤넬 워치에서 프리미에르 아이코닉 체인 네
크리스 워치를 출시했다. N°5 향수 보틀 스토퍼에서
영감을 얻어 경사면으로 처리해 팔각형 케이스로
제작했으며, 샤넬 퀄팅 백의 솔더 스트랩에서 착안
해 레더를 얹은 체인을 사용해 부드럽게 감기는 브
레이슬릿으로 선보였다. 문의 080-805-9628

하는 이들에게, 그 위에 펼쳐진 하늘은 무한하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깃털을
섬세하게 표현했으며 다양한 다이아몬드 세팅 기법
을 적용해 티파니의 장인 정신을 보여준다. 문의
1670-1837

10 샤넬 2025~26 F/W 레디투웨어 컬렉션 샤넬
에서 리본, 끈 장식, 펄, 플리워 등 아이코닉한 요소
를 더한 2025~26 F/W 레디투웨어 컬렉션을 공개
했다. 다양한 크기의 리본을 칼라, 블라우스와 드레
스 커프에 매치하거나 긴 화이트 니트 끈 장식으로
블랙 스웨터를 감싸 연출하는 등 하우스의 코드를
아름답게 재해석한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805-9628

11 지방시 뷰티 랑데르디 퍼퓸 지방시 뷰티에서
랑데르디 퍼퓸을 출시했다. 미스터 퍼퓸 도미니크
로피옹(Dominique Ropion), 안 플리포(Anne Flipo),
파니 발(Fanny Bal)이 청조한 플로랄·우디·발삼 향
이 조화를 이루어 우아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문의
080-801-9500



1 소파드 디아망트 문페이즈 소파드가 1960년대
모더니즘에서 영감받아 제작한 디아망트 컬렉션에
서 처음으로 문페이즈 기능을 갖춘 타임피스 '디아
망트 문페이즈'를 공개했다. 아벤추린 유리의 빛나는
색조와 크라운 세팅 기법을 통해 달의 궤도를 정밀
하게 표시하며, 장인들이 손수 조정한 디스플레이
로 천문학적 정확도를 자랑한다. 문의 02-6905-
3390

2 몽클레르 몽클레르 x EE72 몽클레르는 상징적
인 에디터이자 스타일리스트, 문화 아이콘인 에드워드
에닌풀(Edward Enniful)이 창립한 글로벌 미디
어 엔터테인먼트 기업 EE72와의 협업으로 새로운
지니어스 컬렉션 몽클레르 x EE72를 선보였다. 이
번 컬렉션은 바람, 사막, 눈보라라는 3가지 자연현
상에 맞춰 완성했으며, 블랙을 메인 컬러로 기술적
인 기능성에 구조적인 솔더라인과 오트 쿠튀르 감
각을 더했다. 문의 0030-8321-0794

3 생 로랑 이카리노 백 생 로랑에서 이카(care) 라
인의 확장으로 이카리노 백을 출시했다. 이카 라인
의 상징적인 램 스킨 소재와 독창적인 마름모 퀸팅
이 특징이다. 이번 백은 램 스킨 소재의 블랙, 어반
그레이, 오르탕시아, 다크 베이지, 새틴 스웨이드 소
재의 오렌지 캐리엘 코냑 컬러 등 다양한 컬러로 출
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6105-2228

4 발롱 라구나 베르데 I 스위스 럭셔리 코즈메틱 브
랜드 발롱에서 하이엔드 퍼퓸 컬렉션 스토리 베네
치아에서 새로운 제품 '라구나 베르데 I(Laguna
Verde I)'를 선보인다. 베네치아의 심장부를 가로지
르는 대운하 그랑 카ナル을 모티브로 제작했으며 바
이올렛 리프, 아이리스, 파피루스의 매혹적인 전향
이 특징이다. 문의 070-4352-5203

5 유럽연합(EU) GI 및 유기농 세미나 유럽연합
(EU)에서 국내 식음료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EU
GI 및 유기농 세미나 – 진짜 유럽의 컬러를 맛보다:
페어링 테이스팅'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세미나에

6 7 8 9 10 11





THE PREMIÈRE WATCH

프리미에르 워치

ÉDITION ORIGINALE

CHANEL